

중리해변 개발방안 연구

김태만* · 강상택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동아시아학과

A Study of Developmental Design of Joongri Beach

Tea-Man Kim and Sang-Taik Kang

Department of East Asia, Korean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I. 중리해변 개발의 필요성

1. 중리해변의 실태

영도는 부산항을 끼고 있는 섬으로서 해양성과 생태성이 양호하게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석기 시대의 패총, 태종대, 절영로, 신선바위, 풍어제, 어방 놀이, 해녀촌, 조선소, 등대, 신선대, 망부석, 갈매기, 해송 등의 다양한 해양문화의 지표를 보존하고 있다. 그 중 중리 해변은 영도지역의 태종대, 감지해변, 하리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친수 공간 중 하나이다.

중리해변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연중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사실상 해수욕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경관 조성 및 관광객 편의 차원 하에 지역정서에 맞는 개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함과 동시에 춘하추동 계절적 특성에 기초하여 중리를 찾는 행락객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안경관 조성 및 관광 포인트의 개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중리해변 개발의 당위성 및 방향 제시

2.1 해양문화적 기초

영도는 신석기부터 개항기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혼란과 격변이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유의 해양문화 자원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도 중리의 생태 해양문화자원을 규명함과 동시에 문화상품으로서의 콘텐츠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해양문화 유산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콘텐츠화 함으로써 영도 주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며 궁극적으로 영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신저자 : 김태만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동아시아학과, Tel. 051-4691. E-mail: ktm21@hhu.ac.kr

2.2 현실의 문제점

현재 중리해변지역에는 중리 해너촌, 동삼어촌계, 하절기 중리자갈밭 지역 천막영업 등이 무계획적으로 난립된 각종 영업시설들로 인해 천혜의 해변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해변을 찾아오는 행락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교통, 휴식, 차양막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이 지역이 영도의 관광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는 물론 문화공간의 기능을 함께 겸한 해양공원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2.3 개발의 방향

절영해안산책로와 연계되는 중리해변 관광공원화를 통해 중리해변공원 구축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중리 천막촌을 철거하여 새로운 해양문화 체험학습의 타운을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단순히 먹는 관광에서 바다 자체의 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학습 휴양이 일체가 되는 해양문화관광 공간조성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또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영도태종대, 하리, 중리 감지해변 등을 잇는 해양문화관광벨트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관광 공간이 구축될 수 있다. 즉, 시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공간 구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3. 기존의 조사 및 타당성 검토 내용

3.1 해너촌 지역

3.1.1 위치

: 동삼동 산65-1번지지선 공유수면 ▷ 관리청 : 부산해양청

○ L≒180m, B≒5~50m, A≒3,000㎡ (약1,000평)

※ 도면 및 인접토지현황(사유지 6필지 27,008㎡, 국유지 1필지148㎡)

연번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토지대장상)
1	7필지		27,156	국유지(1),사유지(6)
2	동삼동 639-6	잡종지	148	재무부
3	동삼동 639-10	대지	489	윤병연
4	동삼동640-2	대지	430	윤병연
5	동삼동 산 65-1	임야	3,478	박상갑, 김계숙
6	동삼동640-3	대지	198	박상갑, 김계숙
7	동삼동 산 64-1	임야	1,653	최현규, 송호장
8	동삼동 산 64	임야	20,760	최현규, 송호장

3.1.2 현 실태 및 문제점

암석 해안변에 해녀 0여명(회장 : 이금숙)이 30년 전부터 해산물(직접채취, 구입) 및 주류 판매 영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 곳을 이용하는 하절기 행락객들이 상당수 있어 사실상 '중리 횡집촌'이라는 이미지로 고착되어 있다.

이 곳은 태풍, 해일, 호우시 재해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영업을 정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를 하기도 한다.(자연재해대책 법 제43조에 의거 '97.5월 경계구역으로 지정됨) 또한 횡집(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및 오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어 이 지역의 해수오염 심각한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이용객(행락객, 산책객 등)들에게 천막 등 미관불량이라는 인상과 더불어 관광영도로서의 이미지 역시 상당부분 실추시키고 있다. 사실상 이 곳은 불법영업 지역이라 하여 현실적인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단속 시 해녀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등 철거와 영업재개의 악순환으로 완전단속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사실상 잠정 허용구역으로 정착되고 있는 듯하다. 역설적으로 이 지역에 그리고 이 곳에 아직 남아 있는 해녀들의 존재가치에 대한 문화재적 자산으로써의 재조명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생태 관광공원으로의 개발과 동시에 정착해녀들의 생계를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발상전환이 시급하다.

3.1.3 검토사항

우선 색상과 규격이 정비된 해녀촌을 조성하여 노후화되고 불결한 천막으로 인한 해안경관 피해를 막아 해안 미관을 새롭게 조성한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민속박물관 수준의 "해녀민속관" 조성도 제고해 볼 만하다. 이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해양 민속 보존을 겸할 수 있는 지역 박물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안경관을 저해하는 천막을 일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중리해녀촌 전역을 친수 공간화 시키고 그 곳에 "해녀민속관"으로 건립해 중리해변 지역을 해양문화컨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2 중리 선착장 지역

3.2.1 위치

: 동삼동 산33-1, 산65-1, 638번지 일원

○ L≒180m, B≒5~50m, A≒3,000m² (약1,000평)

3.2.2 현 실태 및 문제점

이 곳은 현재 영도구 서측 해안에 조성된 절영산책로(종점구간)와 인접해 있으며, 선착장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암석해안지역이다. 반면, 해안 절벽 등의 원시적인 자연

미가 남아 있어 그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해안변의 친수공간조성을 통한 시민의 친수 접근성 제고 및 일상의 휴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3.2.3 검토사항

하지만 중리선착장은 여름철 태풍의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어선 파손-1.4억, 어선 대피비용-약 0.2억) 선착장 옆 암석 해안변에 난립한 포장마차로 인해 해안 경관 및 환경이 불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재정비하여 포장마차 등의 난립으로 훼손된 해안 경관의 복원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절영로와 중리산책로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 감지해변 산책로와의 연결 기능도입, 방파제와 낚시피어의 복합개발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II. 중리해변 개발방향에 대한 시민 설문 조사

1. 설문조사의 필요성

중리는 천혜의 해양문화 자연 자원, 태종대를 인접한 관광인프라, 도심과 가까운 지리적 자원을 갖춘 영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지이지만 워터프론트의 체계적인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다. '동삼 중리 항'은 지리적·경제적·문화적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주변공간은 낙후된 횃집들과 열악한 생계형 천막촌의 난립, 그에 따른 해양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친수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 낙후한 인공 환경에 따른 어메니티와 편의성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리해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설문을 통해 통계자료화 하여 해녀촌 개발 방안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설문조사의 개요

- 대상지역: 동삼동 중리항 해녀촌 및 주변지역
- 조사대상 일반인 : (1) 대상지역 횃집운영자 (종사자)
(2) 수요자 및 인근지역주민을 중심으로(사용자)
- 조사기간: 2003년 8월 4일~8월 11일(7일간)
- 분석방법: 설문 조사 및 통계분석

3. 설문조사의 방향

- 대상지역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해변관광지역/씨푸드센터/주거지역/역사문화시설/복합시설/수변공원)
-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들어서야 할 시설 혹은 공간

- 대상지역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의견
(깨끗한 자연환경/주변 개발여건/시내에서 교통 접근성/도시기반시설의 구축/입지조건/양호한 주변경관)
- 대상지역의 발전 장애요소에 대한 의견
(교통 불편/수질 및 자연환경오염/관광 레크레이션시설 부족/친수공간부족/위생상태)
- 대상지역의 활용방안
(해양관광레저기능으로 활용/현재상태로 활용/ 시설의 현대화)
- 대상지역의 발전이 영도구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환경개선/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주민의 생계/구 재정의 자립증대 등)
- 대상지역의 발전이 인근지역의 토지와 건물에 미치는 영향
- 대상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자유응답)
- 응답자에 관한 내용
(성별/연령/직업/학력/거주지)

4. 설문조사의 내용 분석

4.1 이용자 이용 시간, 요일, 월별 상황 (①이용자용 ②종사자용)

1) 귀하/ 손님은 언제 이곳에 자주 찾으십니까?

- ①1월 ②2월 ③3월 ④4월 ⑤5월 ⑥6월 ⑦7월 ⑧8월 ⑨9월 ⑩10월 ⑪11월 ⑫12월

2) 귀하/ 손님은 무슨 요일에 자주 이곳을 찾으십니까?

- ①월요일 ②화요일 ③수요일 ④목요일 ⑤금요일 ⑥토요일 ⑦일요일

3) 귀하/ 손님은 주로 어느 시간대에 이곳을 찾으십니까?

- ①주간 ②야간

4.2 이용자/ 종사자 인적사항

(성별) ①남자 ②여자

(연령)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 이상

(학력) ①초등 ②중등 ③고등 ④대학 ⑤대학원

(거주지) ①영도_____ ②영도 외 부산_____ ③타 지역_____ ④외국_____

4.3 이용자 인터뷰

문1) 귀하/손님이 이곳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풍광이 아름다워서 ②음식이 맛있어서 ③교통이 편리해서

문2) 이곳의 '주변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아주 좋다 ②양호하다 ③불량하다

문3) 이곳의 '건축/천막'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아주 좋다 ②양호하다 ③불량하다 ④개발이 시급하다

문4) 이곳의 '음식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청결하다 ②적당하다 ③불결하다

문5) 이곳의 '음식가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싸다 ②적당하다 ③비싸다

문6) 이곳의 '위생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청결하다 ②적당하다 ③불결하다

문7) 이 곳이 제주 해녀들이 부산으로 이주해 최초로 정착한 곳임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었다

문8) 해녀촌과 관련해 이곳에 '해녀민속박물관'을 설치한다면 가능할까요?

- ①가능하다 ②가능하지 않다



문9) 현재 이곳의 발전 장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교통/주차시설 부족 ②건물낙후 및 주변시설 불결 ③위생/편의시설 부족 ④기타:

문10) 앞으로 이곳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 ①현대적으로 개발요망 ②이대로가 좋다 ③자연상태로 보존하자 ④기타:

문11) 주차시설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①인근에 공공 주차장을 짓는다 ②남고운동장 활용한다 ③차량진입을 금지한다 ④기타:

문12) 이곳을 태종대, 감지해변, 하리 등과 연계해 대대적인 해양 종합 레저관광 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그렇다 ②개발보다는 보전을 해야 한다

문13) 이곳에서 1일 평균 지출 금액 액수는 얼마인가?(이용자)

- ①3만 미만 ②3만-5만 ③5만-10만 ④10만 이상

문14) 이곳에서 1일 평균 수입 금액 액수는 얼마인가?(종사자)

- ①30만 미만 ②30-60만 ③60만-100만 ④100만 이상

문15) 이곳을 다른 분에게 적극 추천하거나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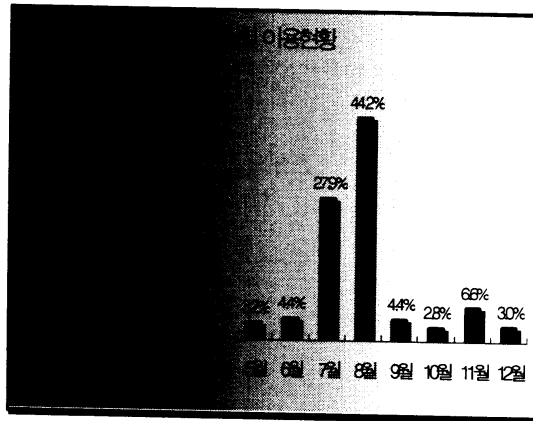
- ①예 ②아니요

5. 설문조사 결과 분석

5.1 이용자 이용 시간, 요일, 월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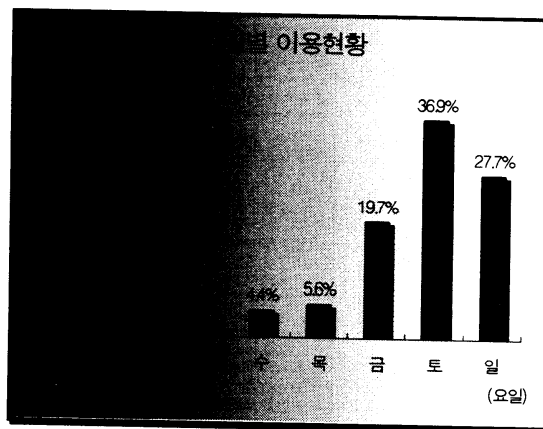
1) 귀하/ 손님은 언제 이곳에 자주 찾으십니까?

월	이용자수(명)	백분율(%)
1월	0	0.0
2월	1	0.2
3월	6	1.2
4월	10	2.0
5월	16	3.2
6월	22	4.4
7월	139	27.9
8월	220	44.2
9월	22	4.4
10월	14	2.8
11월	33	6.6
12월	15	3.0
합계	4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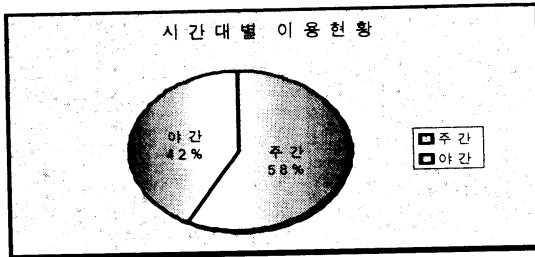
2) 귀하/ 손님은 무슨 요일에 자주 이곳을 찾으십니까?

요일	이용자수(명)	백분율(%)
월	13	2.6
화	15	3.0
수	22	4.4
목	28	5.6
금	98	19.7
토	184	36.9
일	138	27.7
합계	498	100.0



3) 귀하/ 손님은 주로 어느 시간대에 이곳을 찾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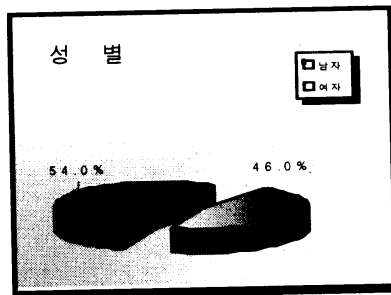
시간대	이용자수(명)	백분율(%)
주간	288	57.8
야간	210	42.2
합 계	498	100.0



5.2 이용자/종사자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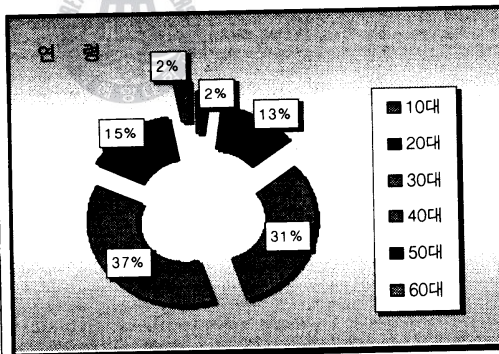
1) 성 별

성별	응답자(명)	백분율(%)
남자	269	54.0
여자	229	46.0
합 계	4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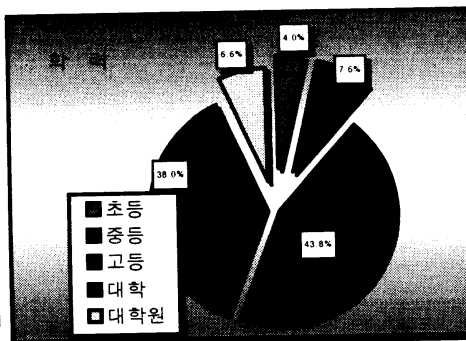
2) 연 령

연령대	응답자(명)	백분율(%)
10대	10	2.0
20대	64	12.9
30대	153	30.7
40대	182	36.5
50대	77	15.5
60대	12	2.4
합 계	4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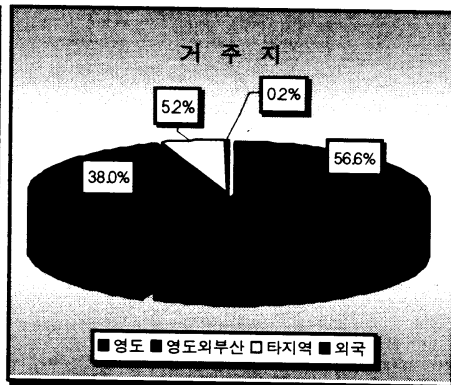
3) 학 력

학력	응답자(명)	백분율(%)
초등	20	4.0
중등	38	7.6
고등	218	43.8
대학	189	38.0
대학원	33	6.6
합 계	498	100.0



4)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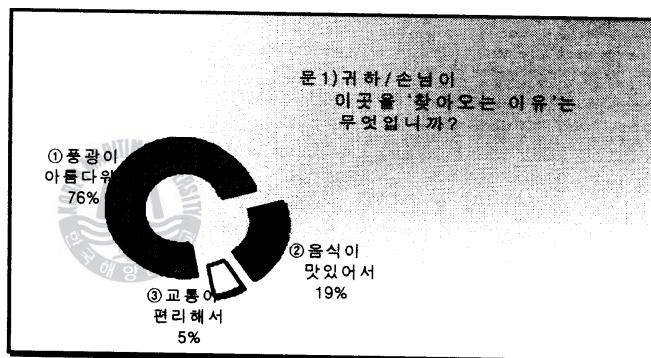
거주지	응답자(명)	백분율(%)
영도	282	56.6
영도외부산	189	38.0
타지역	26	5.2
외국	1	0.2
합계	498	100.0



5.3 이용자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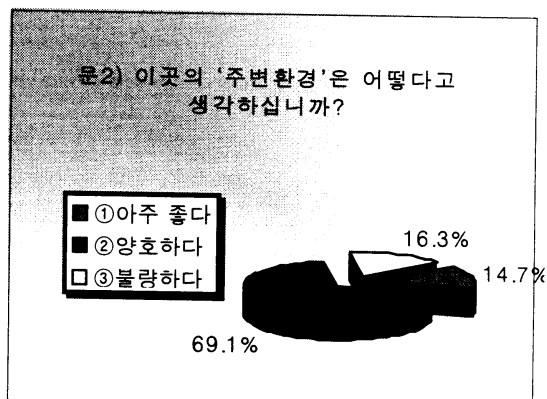
문1) 귀하/손님이 이곳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응답자(명)	백분율(%)
① 아름다운 풍광	363	72.9
② 맛있는 음식	102	20.5
③ 편리한 교통	33	6.6
합계	49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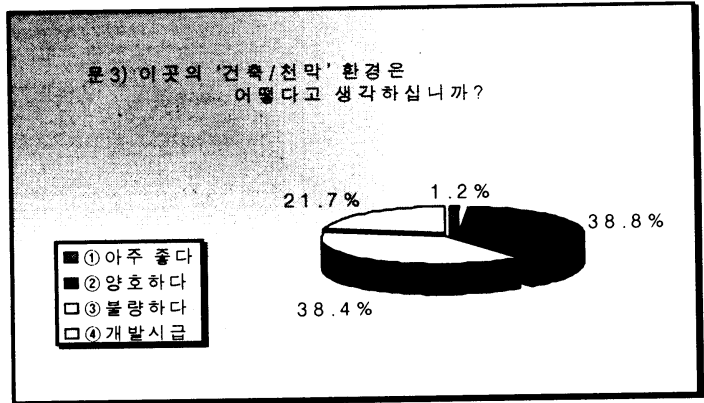
문2) 이곳의 '주변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자(명)	백분율(%)
① 아주 좋다	73	14.7
② 양호하다	344	69.1
③ 불량하다	81	16.3
합계	4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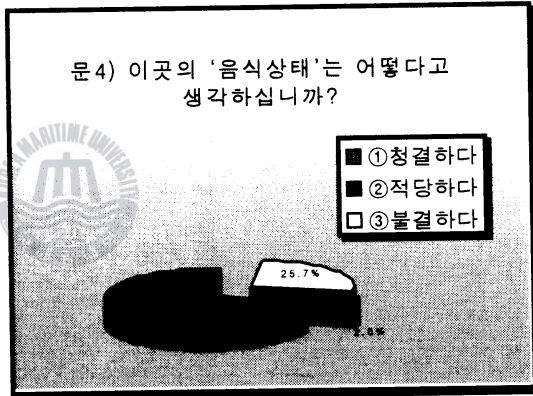
문3) 이 곳의 '건축/천막'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①아주 좋다	6	1.2
②양호하다	193	38.8
③불량하다	191	38.4
④개발시급	108	21.7
합 계	4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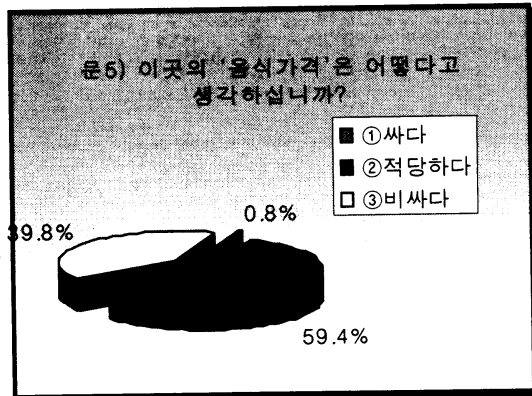
문4) 이 곳의 '음식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①청결하다	14	2.8
②적당하다	356	71.5
③불결하다	128	25.7
합 계	4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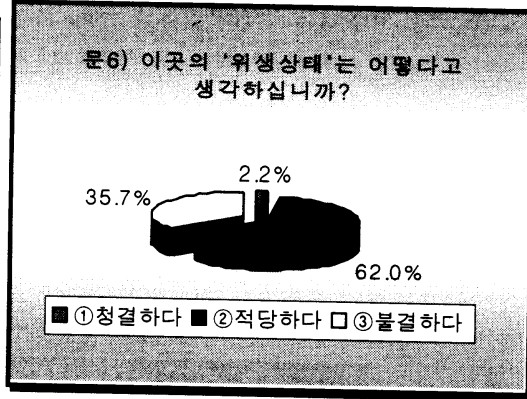
문5) 이 곳의 '음식가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①싸다	4	0.8
②적당하다	296	59.4
③비싸다	198	39.8
합 계	4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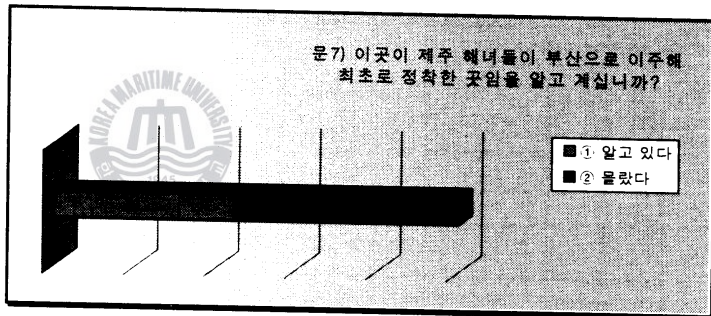
문6) 이곳의 '위생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①청결하다	11	2.2
②적당하다	309	62.0
③불결하다	178	35.7
합 계	4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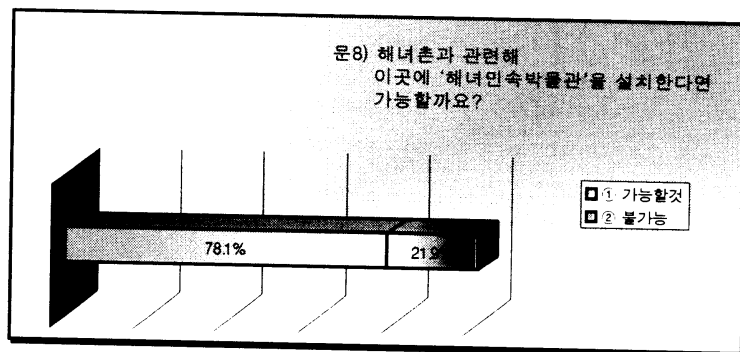
문7) 이 곳이 제주 해녀들이 부산으로 이주해 최초로 정착한 곳임을 알고 계십니까?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① 알고 있다	225	45.2
② 몰랐다	273	54.8
합 계	4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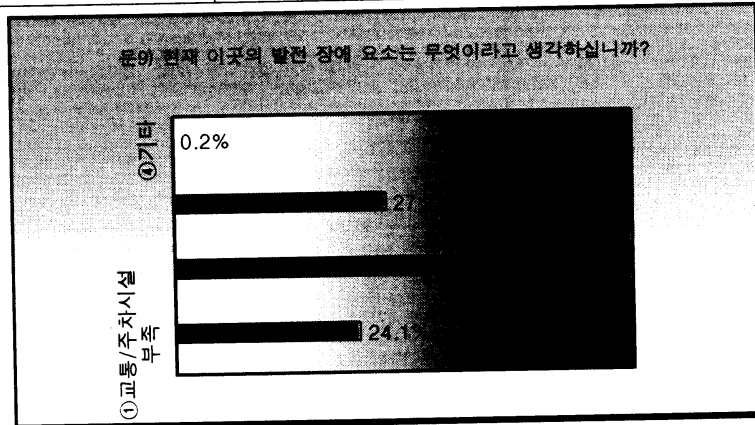
문8) 해녀촌과 관련해 이곳에 '해녀민속박물관'을 설치한다면 가능할까요?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① 가능할 것	389	78.1
② 불가능	109	21.9
합 계	4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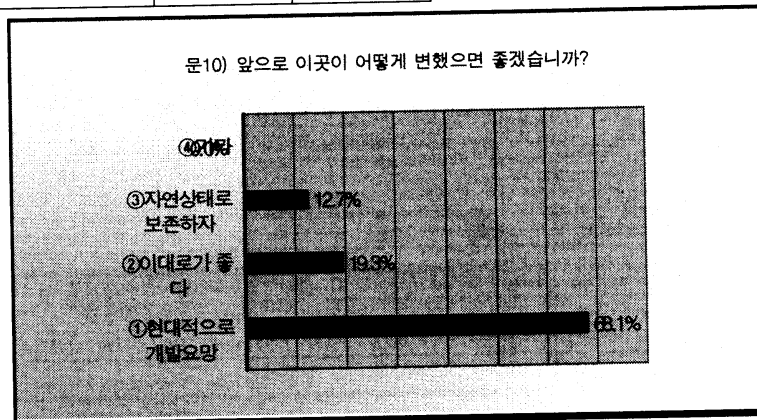
문9) 현재 이곳의 발전 장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①교통/주차시설 부족	120	24.1
②건물 낙후 및 주변시설 불결	239	48.0
③위생/편의시설 부족	138	27.7
④기 타	1	0.2
합 계	49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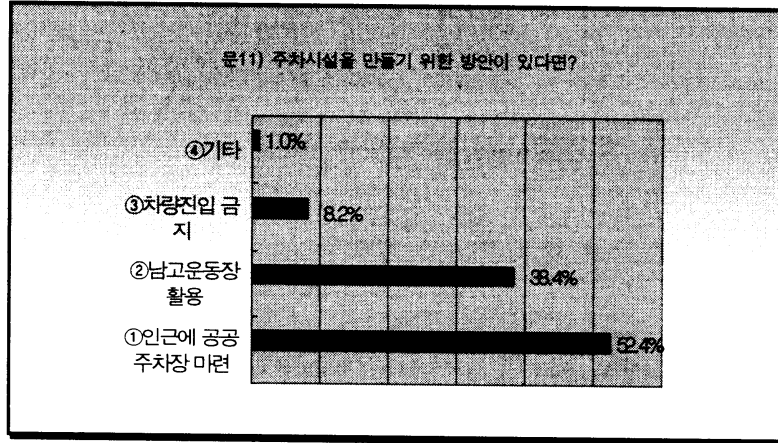
문10) 앞으로 이곳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①현대적으로 개발 요망	339	68.1
②이대료가 좋다	96	19.3
③자연상태로 보존하자	63	12.7
④기 타	0	0.0
합 계	49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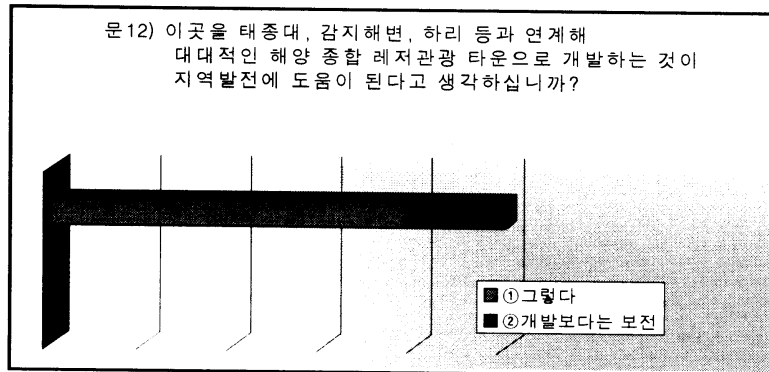
문11) 주차시설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①인근에 공공주차장 마련	261	52.4
②남고운동장 활용	191	38.4
③차량진입 금지	41	8.2
④기 타	5	1.0
합 계	49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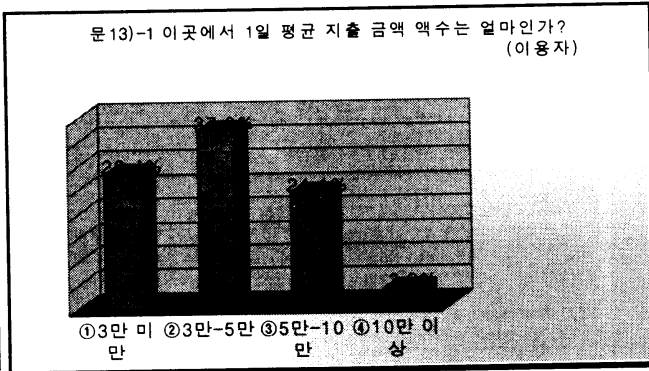
문12) 이곳을 태종대, 감지해변, 하리 등과 연계해 대대적인 해양 종합 레저관광 타운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①그렇다	389	78.1
②개발보다는 보전	109	21.9
합 계	4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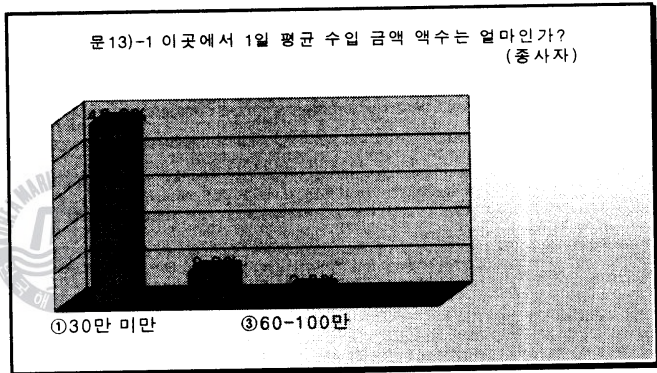
문13) 이곳에서 1일 평균 지출 금액 액수는 얼마인가?(이용자)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①3만 미만	133	28.4%
②3만-5만	174	37.2%
③5만-10만	113	24.1%
④10만 이상	18	3.8%
합 계	438	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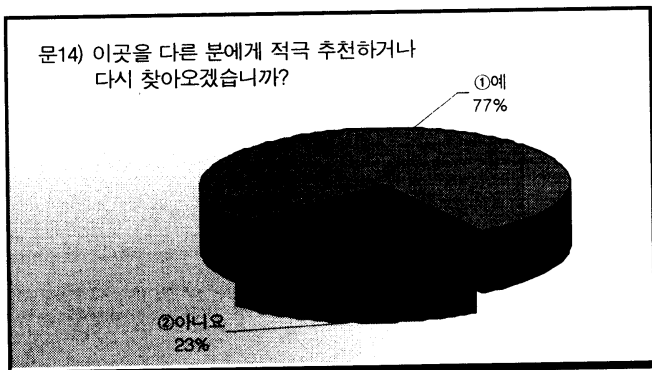
문14) 이곳에서 1일 평균 수입 금액 액수는 얼마인가?(종사자)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①30만 미만	29	48.3%
②30-60만	5	8.3%
③60-100만	2	3.3%
④100만이상	0	0.0%
합 계	36	60.0%



문15) 이곳을 다른 분에게 적극 추천하거나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구 분	응답자(명)	백분율(%)
①예	385	77.3%
②아니요	113	22.7%
합 계	498	100.0%



III.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 론

중리지역은 앞으로 영도의 관광 포인트로 개발된다면 쾌적한 해양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하고 영도의 해양문화 브랜드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태종대, 감지해변, 하리 회센터 등과 연계한 태종지역 관광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산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방안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중리해녀촌”을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 및 시푸드 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녀들의 독점 공간을 시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중리 해변 공간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선 중리 해녀촌, 동삼어촌계, 하절기 중리자갈밭 지역에 천막영업 등으로 훼손된 해변경관을 복원하고 행락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교통, 휴식, 차양막 등을 재편함으로써 해변경관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요트 등 해양스포츠, 해녀민속관 등의 해양문화공간 등을 통한 해양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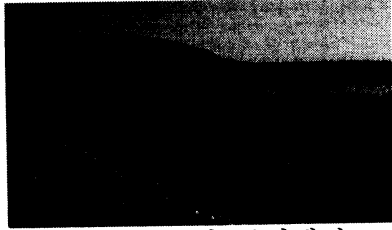
절영산책로와 태종대를 잇는 중리 해녀촌 지역의 정비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개입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영도구 전 구민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하여 수려한 해안 경관 정비 보존을 통한 해양문화컨텐츠로 개발되어야 한다.

영도는 제주 해녀들이 부산으로 이주해 최초로 정착한 곳이었다는 것만큼 사라져가는 해녀의 존재가치를 재조명할 의무가 있다. 이 곳에 정착한 이후 영도 바다와 더불어 삶을 일궈 나간 그들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이를 콘텐츠화 시켜 문화상품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외국이나 타 지역의 유사 사례를 살펴볼 때, 지금 현실적으로 불법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리해녀촌에 “해녀민속관”을 건립하거나 구 차원에서 이른바 “중리해녀축제”를 개최하는 것 역시 중리해변지역 개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녀들의 삶을 조명한 기록(사진, 영상 등)전이라든지, 갯벌체험과 같은 해녀체험, 즉석 채취물 등의 기획행사를 통해 해녀들을 비롯한 중리해변지역민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절기에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해수욕장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천막촌을 정비하고 간이음식점의 오피수 방류를 철저히 단속해 다시 찾을 수 있는 소규모 해수욕장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절기에 집중되는 방문객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그 시기 하계방학을 맞아 비어 있는 인근의 남고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록】

□ 중리해변의 하절기 성수기 및 2003년 9호태풍 매미 피해 이후의 해안경관 사진모음



<맑고 깨끗한 중리해변>



<맑은 중리 바닷물>



<해녀촌 주변의 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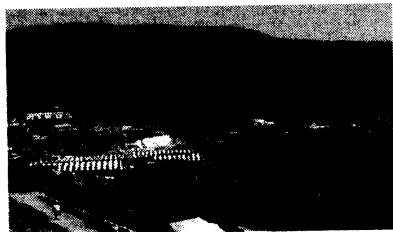
<태풍으로 사라진 해녀촌>



<천막이 없는 중리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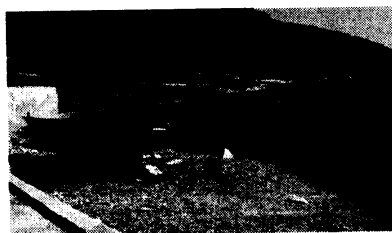
<정비된 중리해변>



<차도에서 본 해녀촌(1)>



<차도에서 본 해녀촌(2)>



<무분별한 천막과 해녀촌>



<선착장에서 본 해녀촌>



<가까이서 본 해녀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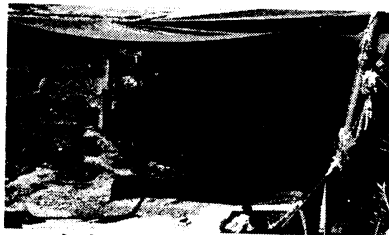
<해녀 촌의 천막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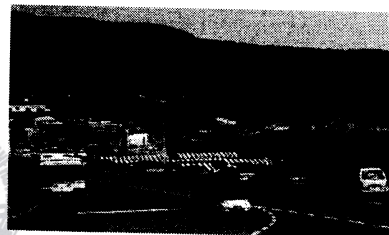
<비위생적인 해녀촌 천막 안>



<비위생적인 해녀촌 해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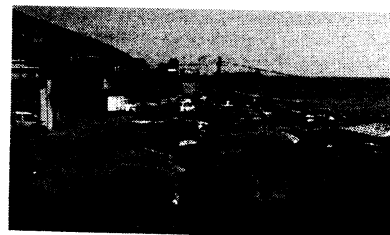
<바다로 흘러가는 오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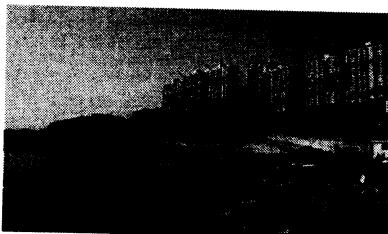
<차도 위 주차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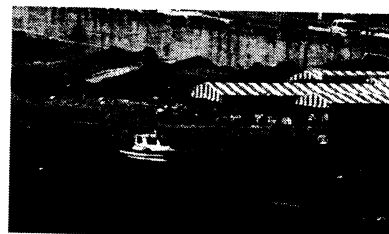
<성수기 무분별한 주차장>



<무분별한 주차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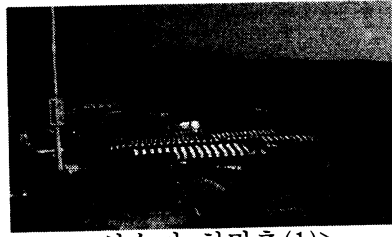
<정비된 선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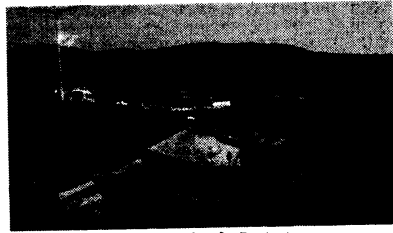
<천막사이의 선착장>



<어지러운 선착장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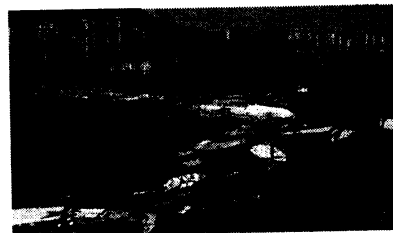
<성수기 천막촌(1)>



<성수기 천막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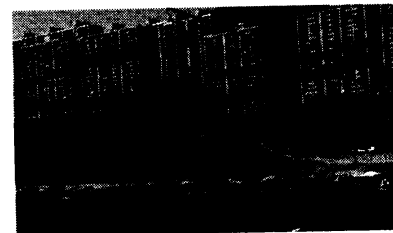
<해녀 촌에서 본 중리전경(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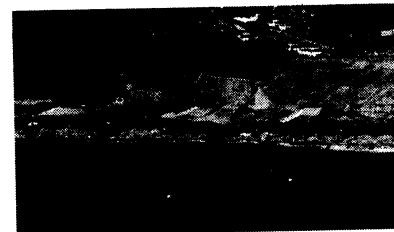
<해녀 촌에서 본 중리전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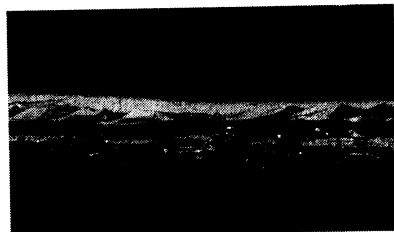
<해녀 촌에서 본 중리전경(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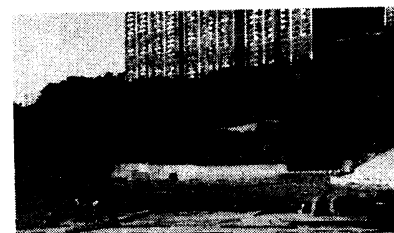
<성수기 중리해변 천막촌(1)>



<성수기 중리해변 천막촌(2)>



<중리해변 해수욕장(1)>



<중리해변 해수욕장(2)>